

송암교회 말씀묵상

이 달의 사진



<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교구별모임 >
2022년 6월 10일, 17일, 24일, 7월 1일

2022년 6월 27일(월)

고아의 아버지

찬송 337장

시편 68:1-6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5절)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는 흠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기자도 악인의 심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독한 자를 이끌어 가족과 함께 있게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어 형통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의 기쁨이 되시고 낙담한 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기도: 주님,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2022년 6월 28일(화)

누구를 두려워 하는가?

찬송 407장

갈라디아서 2:11-14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12절)

외식이란 순수한 행동이 아닌 남에게 드러내 보여야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다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그 자리를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믿음보다 사람들에게 받을 책망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증거했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으로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건과 선행과 명예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외식적인 말과 행동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질문: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동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어떠했나요?

* 기도: 주님! 나의 말과 행동이 온전한 믿음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29일(수)

내가 언제

찬송 369장

욥기 31:16-23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16절)

엘리바스는 욥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마음을 쏟아 약한 지체들을 돌보았다고 항변합니다. 고대 중동지방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홀로된 여인들과 고아가 된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불어넣는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 질문: 하나님이 맡기신 약한 지체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도: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선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2022년 6월 30일(목)

악을 소멸하는 선

찬송 369장

시편 5:1-8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6절)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에는 감사와 찬양의 시들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인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하고 있습니다. 악에 악으로, 거짓에 거짓으로 보복하거나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택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상대에게 배로 더 갚아준다면 내 마음은 통쾌하겠지만 사회는 점점 더 큰 악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맡겨드림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 질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악으로 되갚지 않고, 의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 기도: 주님, 악에 악으로, 거짓에 거짓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2022년 7월 1일(금)

2022년 7월 1일(금)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찬송 361장

시편 116:1-2, 12-19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2절)

시편 1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아뢰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절에서 언급했듯이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도 열정을 다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 질문: 지금 나의 열정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 기도: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한분 바라보며 열정을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7월 2일(토)

예수님의 식탁

찬송 200장

마가복음 7: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손이 부정한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규범, 규례를 지키는 것에 현안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하지 못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손들의 식탁도 용납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그런 식탁입니다. 경계가 없으며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입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경계가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교회에 어떤 경계가 있었나요?

* 질문: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 기도: 주님, 주님이 허무신 경계를 기억하며 모두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을 주소서. 아멘

2022년 7월 3일(주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찬송 365장

창세기 18:1-15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14절)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토록 풍성히 대접하자, 그중에 한 사람이 잉태하지 못한 늙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 때쯤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고 말았습니다. 가당치 않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 질문: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 기도: 주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